

‘청년온(ON) 인재은행’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

무주군, 청년 군정 참여 확대·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무주군이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 청년온(ON) 인재은행’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간 ‘청년(ON) 인재은행’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 청년들의 인재 정보를 확보해 신뢰성 있는 정책 기초자료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청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 청년들에게 공공 목적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로 삼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특성에 맞는 청년 인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발굴하는 데 유용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연령, 학력, 거주 기간, 취업 상태,



무주군 청년온(ON) 인재은행 포스터

정책 관심 분야 등의 인재 등록은 무

주군 누리집(www.muju.go.kr) 내에 ‘무주청년(ON) 인재은행’ 메뉴에서 가능하며, 인재은행에 등록된 정보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자료 저장소에서(DB) 안전하게 관리된다.

김성욱 무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협력과장은 “무주군 청년온(ON) 인재은행은 청년과 행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무주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인재 등록을 본격화한 만큼 분기별로 현황을 분석해 효율적인 청년 행정서비스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무주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무주에서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장수군은 2025년 개인정보보호의 날(9월 30일)을 맞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주간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 기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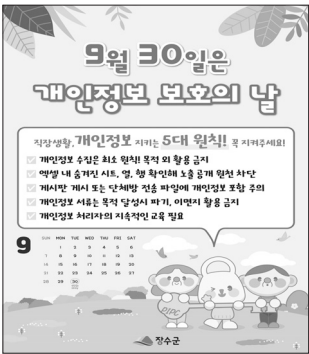
군은 군민들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올바른 정보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대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다중이용시

설에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고,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5대 원칙’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개인정보 5대 원칙은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 원칙으로 목적 외 활용 금지 △역설 내 숨겨진 시트·열·행을 확인해 개인정보 노출 차단 △게시판 게시물이나 단체방 전송 파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주의 △개인정보 서류는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고 이면지 활용 금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 등으로,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주간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인 9월 30일을 전후로 한주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여 범국



민적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행사 기간이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 대표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에 ‘개인정보 5대 원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 개최

진안군은 23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군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배려 계층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소비자권익 증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소비자원, 기업소비자 전문가협회, 전북자치도, 진안군이 함께 참여해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이동 상담을 비롯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실내 행사는 진안 북학노인복지타운



에서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장수사 진 촬영, 건강진단 및 의료기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피해 상담을 비롯해 소형가전 무상

점검, 소형 폐가전 수거 등의 서비스도 제공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실의 행사는 마이산 북부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군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돕기 위해 기아, 현대 등 국내 주요 자동차 브랜드 5개사와 함께 차량 무상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쿠쿠, 쿠렌, 캐리어,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등 국내 주요 가전·보일러 7개사가 참여해 휴대폰·밥솥 등 생활필착형 소형 가전 제품과 다중이용시설 내 에어컨·보일러 등에 대한 무상점검과 수리를 지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

장수군, 제2차 기관·단체장 상소회 갖고 선정 위한 협력 다져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회의장, 황재현 장수경찰서장, 추영곤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 20여 명이 참여한 2025년 제2차 기관·단체장 상소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을 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중 6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수군민 전체(8월 기준 20,390명)에게 지급되면 2년간 약 734억 원이 지역에 순환하게 되고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마중



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인구 2만 명의 장수군이아말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 지역이라는데 공감하며 공모 대응을 위해 기관별 협조 사항을 검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장수군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다”며 “선정을 위해서는 기관·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수군이 반드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의회, 반부패 청렴·고위직 4대 폭력 예방교육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지난 23일, 최복미술관 다목적영상실에서 반부패 청렴교육과 고위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반부패 청렴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자본 이사장이 맡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를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이 공직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청렴 가치와 실천 방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고위직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 전문강사 최선광 교수가 맡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괴롭힘 등 4대 폭력의 유형과 사례, 예방 대책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고위직 공직자가 유념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조직 내 성평등 문화와 인권 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하반기 공직자 반부패·청렴·갑질 예방 교육

진안군은 23일 군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공직자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한유나(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 강사의 강연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등에 관한 내용을 다



양한 시청각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진장여객, 진안 홍삼축제 홍보 ‘앞장’

2025 진안홍삼축제를 앞두고 지역 교통업체인 무진장여객(대표 박종국)이 축제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회사 소속 운전기사 전원이 축제홍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운전대에 오르며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진안군은 매년 가을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은 홍삼축제를 통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무진장여객은 군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접하는 버스를 축제 홍보 매체로 활용, 축제 열기를 확산시켜겠다는 계획이다.

박종국 대표는 “운수업은 군민의 발이자 외지 관광객의 첫 관문 이라며, 버스기사들이 직접 홍보에 참여해 축제의 성공 분 위기를 만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진안홍삼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무진장여객의 홍보 참여는 축제 성공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독감 예방접종 실시

무주군이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8곳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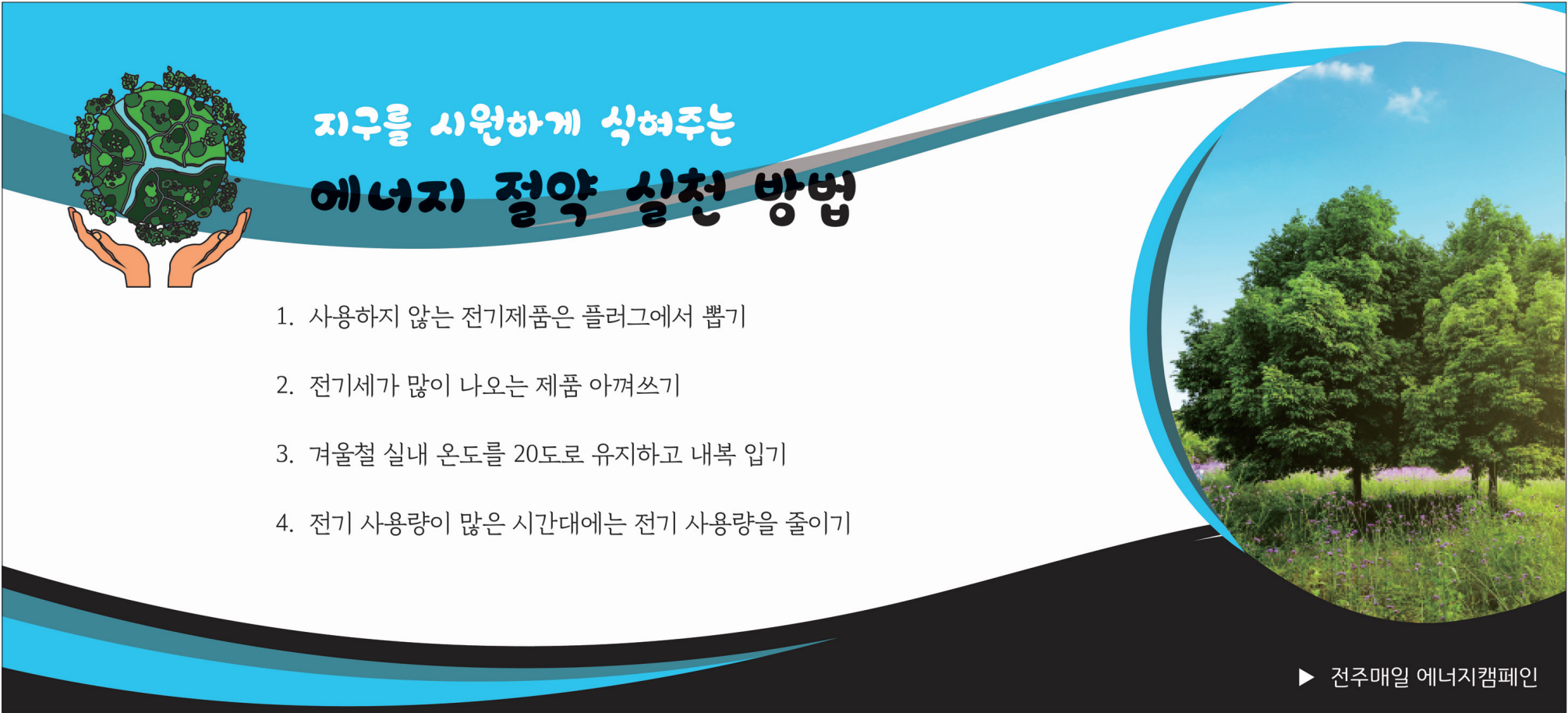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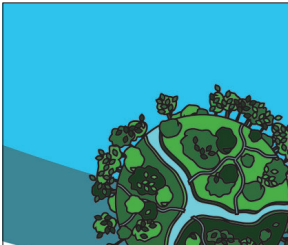
특히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는 면역력 형성을 위해 2회 접종이 필요해 22일부터 우선 접종하고 있다.

2회 접종 대상을 제외한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는 9월 28일부터 접종한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건지소·진료소에서도 10월 15일, 보건의료원은 11월 5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